군산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군산시보건소 는 고위험 임산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임산부들의 적극 활용을 당부하고 나섰다.

이 제도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및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로 늘어나고 있는 고위험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비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이며 임신주수 20주 이상 34주 미만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의 3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산모이다.

지원금액은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50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90%로 1인당 최대 300만원이며,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건소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보건소 모자보건계(☎460-3239)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서 중앙지구대 청사 환경 정비

익산경찰서(서장 김성중) 중앙지구대(대장 김용대)는 지구대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일환으로 김용대 지구대장을 비롯해 이일구 · 임혁구 · 박완근 · 정용균 경위 등 전 직원이 하나 되어 청사 환경 정비를 실시했다.

그간 김용대 대장은 부임이후 청사내에 휴게쉼터인 파고라를 설치하여 직원뿐만 아니라 방문 민원인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휑하고 잡초만 무성했던 지구대 주변 공터에는 철쭉 120주, 화초 200주를 식재, 꽃내음 가득한 화단을 조성하여 지구대 분위기를 화사하게 변모시키는 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눈길을 끌고 있다.

김용대 중앙지구대장은 "앞으로도 세세한 곳까지 주의를 기울여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쉬어갈수 있도록 청사를 아름답고 편안한 쉼터로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익산시는 14일 오후 상황실에서 시의 미래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요 시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2016년 상반기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지영 부시장을 비롯해 정책자문위원, 주요사업 담당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생활권 연계협력사업 발굴 추진방향, 시장 공약사업 및 시정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분야별 자문을 구했다.

이지영 부시장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인 자문위원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며 "제시해주신 의견은 시정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익산시는 미래발전구상용역에 대한 분야별 자문과 시정 주요사업과 국가예산 확보사업에 대한 자문 등을 해오고 있으며, 앞으로 시책사업, 주요 현안사업은 물론 새로운 시책 개발과 행정개선 사항에 대한 자문과 협조를 할 계획이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 불법건축물 단속

군산시는 무질서한 불법건축행위를 바로잡고 명품관광도시의 품격에 걸맞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

시는 올 상반기 위반건축물 및 인근 부설주차장 점검을 실시해 위반건축물 5개소, 건축물 부설주차장 9개소에 대한 위반사례를 적발한바 있다.

이는 과거 단속사례를 비추어볼 때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써, 군산시가 매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업정한 행정처분을 함에 따라 불법건축물에 대한 예방적 효과와 함께 법과 질서를 지키는 범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시는 명품관광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무분별한 불법 건축행위에 대해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군산=문정곤기자

"LH갑질로 입주업체 도산위기"

군산2국가산단 6개 업체 1년 이상 임대차계약 체결 못해

군산2국가산업단지 내 임대전용단지 사용을 놓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와 임대 업체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A업체 등은 14일 오전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LH공사의 갑질로 인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못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도산 위기에 처해있다"고 피해를 주장했다.

LH공사로부터 '토지명도소송'을 당한 업체는 경주포장수출, 고수정공 등 6개 업체이다.

이 가운데 경주포장수출 외 4개 업체는 전 임차인의 연체차임을 변제해 주기로 했고 LH공사는 이들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LH공사는 장기간 토지 임대료를 연체한 채 부도처리 된 해당 건축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됐으나, 이 사실을 알면서도 경매참여 및 배당신청을 하지 않고 임대료 연체 사실을 고의로 숨겼다"고 주장했다.

또 "LH공사는 자신들의 과오나 부실한 관리로 발생한 연체 임대료를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낙찰업체에게 전가하여 부당하게 대위변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LH공사는 낙찰받은 업체들에게 전 임차업체가 연체한 임대료를 납부 해주지 않으면 임대차계약도 체결해줄 수 없다며 압박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LH공사는 자신들의 잘못으로 발생한 전 임차인의 연체 임대료를 위와 같은 부당한 갑질로 새 임차인에게서 갈취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에 대해 LH공사 측은 "해당업체들이 경매 참여시 주의를 기울였다며 임대단지에 자리한 해당 건물들이 곧 철거될 건물임을 알 수 있었음으로 경락업체들의 주장은 합리성이 결여된다"고 반박했다.

LH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경매 참가자는 경매물건에 대한 현황, 법적문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참여해야 한다"면서 "경매참가자 업체에서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5년에 공장건물 경락업체가 전임차인의 연체료 부담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으나 기각 된 바 있다"고 일축했다.

한편, 논란이 군산2국가산업단지 내 토지는 중소기업 활성화 등을 위해 국가시책으로 조성한 임대전용단지이며, LH공사가 소유자이자 임대주체이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2016 민선6기 공약이행 평가 A등급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 등 주기적 추진사항 보고회 실시 시민과 소통행정 지향

군산시가 '2016년도 민선6기 전국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본보 7월 14일자 1면〉

이번 평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 평가는 각 지자체에서 작성한 민선6기 공약실천계획서에 대해 공약이행완료, 2015년 목표달성, 주민소통, 웹소통(Pass/Fail), 일치도(Pass/Fail) 등 5개 분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SA, A, B, C, D 총 5개 등급을 부여한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 4월 기초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지자체에서 게시한 공약실천계획서를 분석하여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이행 사항이 얼마큼 추진되고 있는지와 공약사업 추진사항을 시민들과 잘 공유하고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군산시는 이번 평가에서 지난해 평가등급보다 상승된 A등급을 받아 민선6기 공약 실천이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어 시민들과의 약속이행이 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민선6기 5대 핵심분야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 ▲도시재생 및 균형발전 ▲희망주는 농수산업 ▲풍요로운 지역경제 ▲함께 행복한 복지에 대해 총 107개 공약사업을 표방하여 주기적으로 공약이행에 대해 추진사항 보고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과의 소통행정을 지향하고 있다.

공약사업별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총 107건 중 임기 내 사업이 83건, 임기 후 장기사업 24건으로 이 중 시 자체 추진 85건, 중앙부서 등 타기관 협력 추진 22건이다.

전체 사업비는 약 1조1117억원으로 구성비는 국비 36%, 도비 5%, 시비 10%, 기타 민간자본 등이 49%이다.

107건의 공약사업 중 지난해 말 기준 41건에 대한 사업이 이행 완료 됐고, 나머지 66건에 대해서도 정상 추진 중으로 이 가운데 26건은 이행률 50% 이상이며, 전체 사업에 대한 이행률은 2015년 말 기준 평균 64.3%로 나타났다.

민선6기 2년차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해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고 충족시키는데 주력해 온 결과 풍요, 융화, 품격의 도시로 거듭나는 성과를 이뤘다.

특히 국가예산 1조시대를 열었으며, 민선4기 이후 480개의 기업유치로 22조의 투자 확보와 5만8천여명의 일자리 창출, 근대역사박물관 누적 관광객 220만명 돌파, 시간여행축제, 근대골목길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 도민체전 등 대규모 스포츠 행사 유치를 통해 연 120억원의 경제효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어린이행복도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과 전국 최초 51개 지역아동센터 전체로 친환경급식사업을 확대했으며 복지사각지대 발굴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활성화 했다.

또한 중국 13개 우호도시와 교류행사를 활발히 전개하고 군산-서천간 행정협의회 재개를 통한 도시간 상생의 실시구시 교류 추진에도 박차를 가했다.

고군산연결도로 및 군장대교 등 대규모 SOC사업을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했으며 행복학습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도모했고, 글로벌 군산 품격제고 희망등대정책토론단을 중심으로 시민공동체헌장 제정 등 시민공동체 운동 확산에도 노력한 것으로 평가됐다.

/군산=문정곤기자

원광대 창업지원단, 22일까지 창업아이템 사업화 2차 모집

창업아이템 사업화를 통해 고급기술창업아이템 및 유망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와 창업자들에게 총 10억원을 지원하는 원광대 창업지원단은 오는 22일까지 2차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난 6월 6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1차 모집에서 16명을 선발한 원광대 창업지원단은 이번 2차 모집에서 7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고급기술창업에 최대 7천만 원, 일반창업에 최대 5천만 원씩 2차 선정자들에게 2억6천여만 원을 지원한다.

창업아이템 사업화는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기술성, 시장성, 사업화 실현 가능성, 창업자 역량 등 1단계 서류평가에 이어 2단계에서 창업자 역량진단 및 보완, 멘토링 진행,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등 발표평가를 거쳐 선발된다.

원광대 창업지원단장 백현기 교수는 "국가적으로 창업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에 따른 창업지원 사업이 많아짐에 따라 원광대 창업아이템 사업화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 초기 기업의 자금조달을 해소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창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익산=장양원기자

서부보훈청 호국 · 안보현장 체험 행사

전북서부보훈지청 에서는 지난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호국정신으로 하나된 대한민국을 염원하고, 대학생들의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안보의식 함양을 위해 "호국안보현장 체험"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전북서부보훈지청 과 원광대학교 가 서로 협력하여 국가안보와 우리 영토의 소중함을 되새겨 보기 위해 원광대학교 대학생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현장 견학 일정으로는 강화도에 위치한 '평화전망대', '전쟁박물관' 등 강화 역사전적지를 견학한 후 탈북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통해 북한의 올바른 현실을 이해하고, '판문점', '도라전망대' 등을 탐방한 후 활동에 대한 소감 나누기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호국영웅과,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대한민국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내일의 일꾼으로서 각자의 마음가짐을 다져보는 시간으로 행사를 마무리 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평소 6.25전쟁 및 분단국가로서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안보현장 체험을 통하여 많은 것을 배웠으며 특히,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알게 된 뜻 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답사단 인솔을 책임졌던 전북서부보훈지청 송호택 주무관은 "비록 1박 2일의 짧은 기간 동안 안보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갖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틀간의 안보현장 체험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대학생들이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매우 뿌듯함을 전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지역 상반기 실업급여 신청자 감소

지급인원 · 지급액 소폭상승

올 상반기 관내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감소한 반면 지급인원 및 지급액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군산지역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3,797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3,921명보다 124명(302%)이 감소했다.

고용보험 상실자(퇴사자)가 1만9,677명이 발생됐음에도 재취업의 호조로 3월 이후 실업급여 신청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실업급여 지급인원은 5,987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5,849명에 비해 138명(2.4%) 증가했고, 지급액 역시 185억원으로 전년도 159억원 보다 26억원(16%)이 늘어났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 구직급여일액이 전년대비 8% 증가한데 이어 전년도 퇴사자의 재취업기간이 길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한편, 지난 4일부터 실업인정제도가 기존의 급여지급 중심에서 재취업지원 중심으로 개편됐다.

1~3차 실업인정 일에는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집체교육 프로그램 참여로 실업급여가 지급되고, 4차 실업인정일 이후 창구상담을 통해 집중적인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시,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추진

익산시는 '국제 안전도시 기반 구축과 여성가족친화도시' 기치아래 공중화장실 성범죄 예방을 위해 위험 발생시 24시간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공중화장실에 안심비상벨 설치를 추진한다. 시는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여성 이용자들의 불안감 해소와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안심비상벨을 설치하기로 했다.

안심비상벨은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시민공원을 비롯하여 웅포 캠핑장, 미륵사지 공용주차장 등 75개소 다중이용시설의 여자화장실 각 칸마다 설치된다. 벨을 누르면 화장실 입구에 있는 경광등과 강력한 경보음이 함께 작동하여 주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무선통신을 통하여 곧바로 익산경찰서 112 종합상황실로 통보되어 현장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경찰 인력을 즉각 출동시켜 범인 검거 등 초동대응을 할 수 있다.

시는 이달 경찰서와 협의를 마치고 오는 10월까지 안심비상벨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무선통신 안심비상벨과 경보음, 경광등 설치로 안전사각지대를 줄이고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심리적 안정 등을 통해 불안감 해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 지역출신 국회의원 보좌진 초청 간담회

군산시는 군산출신 국회의원 보좌진들을 초청해 주요시정 및 현안에 대한 이해제고와 군산지역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간담회를 14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의원을 보좌하며 실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보좌진들에게도 군산시의 시정전반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모를 통해 의원들의 군산발전을 위한 활동을 뒷받침해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간담회를 통해 새만금방조제 1·2호 행정구역 결정, 새만금 군산공항 확장 건설 등 주요현안, 국립 신시도 자연휴양림 조성, 새만금 남북2축도로 건설 등 국가사업에 대해 그 필요성과 사업추진 논리를 집중 설명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문동신 시장은 "올해 대형 SOC사업의 마무리 및 새만금사업에 대해 시급하지 않다는 정부부처의 시각으로 인해 2017 국가예산확보와 속도감 있는 새만금 내부개발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며 "향후 중앙부처 및 기재부 대응에 정치권의 긴밀한 공조"를 당부했다.

이에 보좌진들은 "항상 군산에 관심을 갖고 국회의원을 뒷받침해 군산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군산=문정곤기자